

# 사찰천년지킴이 노거수를 지키자

### 병충해·영양부족 등 꾸준한 치료 절실

#### 문화재청 관리실태 토론회

나이테 켜켜이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을 것 같은 사찰의 노거수(老巨樹).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송광사 곽항나무, 운문사 처진 소나무는 대표적인 사찰의 노거수로 이들은 각 사찰의 보물로 꼽힌다. 그러나 사찰의 천년 지킴이 자리를 지켜온 노거수들이 간단한 치료부터 대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여서 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지난 4월 13일 개최한 '천년 기념물 노거수 관리실태 평가토론회'는 나무병원 실무자들과 노거수 실태조사팀이 모여, 노거수 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재 국내 노거수는 모두 141그루. 이 가운데 외과수술을 받지 않은 나무는 8그루에 불과할 만큼, 노쇠한 나무가 대부분이다. 병충해나 공해에 의한 피해, 나무를 지탱하는 줄기가 썩어 속이 비는 공동화 현상,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료를 너무 많이 주거나 뿌리를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노거수 치료에는 줄기의 외과수술 외에 뿌리 수술, 병충해 방제, 영양 공급, 주변환경 정비 등이 적용된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1983년부터 외과수술 4회에 영양 주사 2회, 뿌리수술 1회의 치료를 받았고, 화엄사 은행나무도 외과수술 2회, 영양 주사 1회, 뿌리수술 1회의 치료를 받았다.

특히 13일 문화재청의 토론회에서는 속이 빈 나무줄기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나무속을 메울 재료와 기술, 그리고 나무속을 메우기를 반대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재료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시멘트로 줄기를 메웠지만, 최근에는 우레탄 폼이나 에폭시 수지, 실리콘으로 바뀌고 있다. 나무를 지탱하고 주위의 충격을 이겨낼 만큼의 강도가 요구되고 나무 생장에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용준(서울대) 명예교수는 "줄기의 형성층을 덮지 않는 기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아, 조치가 부패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재료를 활용하는 기술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한편 박상진(경북대) 교수는 "나무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에는 속을 메우지 않는 것이 나무 손상을 막는 방법"이라며 "외국에서도 속을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속을 메우기 전 부패한 부위를 긁어내면서 살아있는 세포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고사한 용주사 회양목처럼 지름이 작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위를 긁어낼 확률이 높아 생장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 홍성기 교수 "연기론에 음양오행 핵심 포함"

## 최연식 교수 '비밀의기' 궁예 시대 저술 추정

### 한국불교학회 40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회장 이명래) 제40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4월 17~18일 금강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불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등 3개의 분과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된 20편의 논문 가운데 연기론과 음양오행론의 연관관계를 살핀 '연기설의 관계론적 해석에 기반한 음양오행론의 재구성'(홍성기 아주대 교양학부 교수)과 새로운 불교학문을 연구한 '<간나표가일승수행자비밀의기(健攀標詞一乘修行者秘密義記·이하 비밀의기)>의 찬술시기와 찬술자'(최연식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라는 두 논문이 눈길을 끈다.

홍성기 교수의 '연기설의 관계론적 해석에 기반한 음양오행론의 재구성'은 발생적·역사적 측면에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연기론과 음양오행론을 연계시키고 있어, 그 시도 자체가 새롭다는 평가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최근 불교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불교생태학'이 연기설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결여돼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원자력 폐기물과 같은 산업폐기물은 왜 외경(畏敬)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즉, 이러한 불교생태학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론이 갖는 보편적 잠재력과 거시적인 순환조절시스템이 요구되며, 이 같은 이유로 음양오행론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기설과 음양오행론은 어떻게 관계지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연기론이 같음과 다름을 합한 보편적 관계론이고 음양오행론의 핵심인 상생(相生)과 상극(相剋)관계가 연기론의 구조 속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혔다. 또 "음양오행론은 분류와 변화의 체계가 동시에 구성돼, 전

체와 부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며 "서양의 과학이 일단 세계를 분류한 후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연거푸 성립"이라고 덧붙였다.

최연식 교수는 '비밀의기'의 찬술시기와 찬술자'에서 "최근 한국불교의 문헌으로 알려진 '비밀의기'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10세기 경에 지어진 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밀의기'에 등장하는 '평양신성(平壤新城)'이라는 지명이 궁예 정권 성립 이후에나 가능한 명칭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후삼국시기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시기에 불교문화가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밀의기'는 사상적으로도 신라 하대의 화엄사상 통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최 교수는 "이 책은 의상을 계승하는 신라 '화엄종'을 기반으로 '대승기신론' 사상과 '밀교적 요소'를 결합하려는 민간과 재야 불교계의 흐름을 보여 줬던 의미"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8>



###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과 죽음에 있어 자연사·자살·안락사라는 행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선택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말이지만,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잘 들어드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결과를 얻어도 후회가 없고, 후회 없음을 얻어 자연사·자살·안락사라는 행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선택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으며,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말이지만,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말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잘 들어드보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수감된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한다. 스스로

## 지금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 항상 깨어 일체를 사랑하는 '如如함'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없다. 실수도 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우리가 원래 그러함을 알아 자기가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자리(차안)를 떠나 가야 할 곳(피안)이 따로 없음을 알 뿐이다.

지금 이 자리의 나는 과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의 나를 수용하는 것은 나의 과거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말이고, 지금의 내가 이를 미래의 나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누가 잘하고 못나고 없다. 오직 업숙한 내 몫으로서의 삶이 있을 뿐이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든, 결코 스스로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미 그의 삶은 온전한 것이기에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어떤

힘든 삶의 몫을 짊어지니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만 땅이 부족하면 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오직 깨어있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깨어있음이란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동시에 각자(儆者)란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깨달음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깨어있는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대로 여여(如如)하다는 것을 알아 부족한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여 진정 사랑하게 된다. 오직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서로 (나와 나, 나와 너) 사랑할지니.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SHIM

## 선사상 조명 활발

### 선문화학회 등 세미나 이어져

선(禪)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가 연이어 개최돼, 선사상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이사장 범장)이 4월 24일 수덕사에서 개최하는 제5회 학술대회는 선사들의 사상을 현대에 적용해 보는 자리다. 김경집(동국대) 교수의 '경허의 선사상과 현대적 의미'와 이택진(중앙선원대) 교수의 '만공의 선세계와 현대인의 정신윤리', 차차석(원광대) 대학원 박사의 '선사의 행적을 통해 본 선의 역사적식', 정기문(경원대) 교수의 '선의 경제윤리와 현대사회', 박영재(서강대) 교수의 '선수행법의 현대적 활용'이 발표된다.

이에 앞서 17일 개최된 선문화학회(회장 김용정의) 제1회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유근(중국어사학과) 연구원의 '중국북조시대의 석굴과 선법'과 유국중(중국 청화대) 교수의 '<다가지관(摩訶止觀)> 중의 36금설(儆說)', 장미경(성균관대) 교수의 '선어록과 소화', 박영재 교수의 '선어록과 언어에 관해서'도 발표했다. 오유진 기자

# 우리 가족에게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 챙기셨습니까?



국립대외피재서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 자료신청 **02)455-7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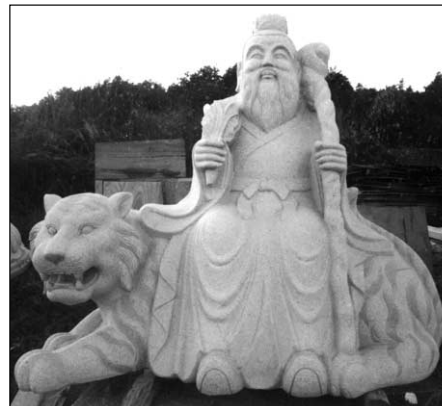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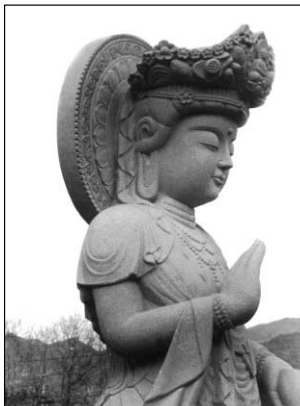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기슭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